

김연우, 유스케 10주년 앨범 이후 감감무소식… 새 앨범은 언제

〈유희열의 스케치북〉

김연우는 ‘교과서 창법’ 소유자로 불린다. 특히 서정적이고 느린 템포의 발라드 곡을 유독 잘 부르는데 곡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별 택시’ ‘사랑한다는 흔한 말’ 등이 대표적이다.

김연우의 본명 ‘김학철’은 그 시절 악역 전문 중견 배우 김학철이 유명해 발라드 가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유희열이 1996년 데뷔 당시 토이하면 발라드인데 김학철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김연우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았는데 들을수록 예쁘더라.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김연우는 대한민국 발라드 대표가수로 거듭났지만 토이에 참여 전까지만 해도 유명해질 거라는 예상을 못했다. 앞서 서울 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재학 시절부터 노래를 잘 부르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를 입



광진하우스토리강

서울 광진구 자양동 813

증하듯 김경호 ‘마지막 기도’, 임창정 ‘이미 나에게는’ 등 코러스 가수로도 참여했다.

또한 교수의 추천으로 현대자동차 ‘그레이트 이스’를 비롯한 여러 제품의 CM송을 부르기도 했다.

이후 그는 공군 군악대를 제대하고 1995년 유재하 가요제에서 ‘다가오는 이별’로 금상을 수상하면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그러다 대학로에서 토이 2집 객원 보컬을 구하던 유희열을 만나면서 음악 인생에 전환기를 맞이했다. 당시 유희열은 김연우에게 곡을 줬는데 이 곡이 토이의 대표곡인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이다. 이 노래가 히트하면서 음반기획사로 부터 연락이 빚발쳤고 김연우는 이를 통해 1998년 솔로 1집을 발매할 수 있었지만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이후 1999년 보컬트레이너로 나선 뒤 그 해 토이 4집에 참여, ‘여전히 아름다운지’를 히트시키며 토이의 대표 가수로 인정 받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토이 2집 때 5곡을 불러 200만원을 받았는데 4집 때는 2

곡을 불러 300만원을 받았으니 가창료가 올랐다”며 “당시로서 생활에 보탬이 된 큰 금액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연우는 솔로 가수로도 꾸준히 음반을 내며 대중적인 가수로 성장했다. 그러던 그가 더욱 유명해진 것은 2011년 방영한 MBC ‘나는 가수다’ 출연 이후부터다. 이 프로그램은 가수가 자신의 직업을 걸고 순위를 정해 서바이벌을 벌이는 잔혹한 경쟁 무대다.

그 해 5월 방송된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김연우는 아쉽게도 단 두 곡의 노래를 부르고 탈락한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가수 박정현은 당시 김연우가 부른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무대에 대해 “김연우의 특징을 버리고 도전했다”며 칭찬했지만 결과는 탈락이었다. 그러나 이 무대를 계기로 김연우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섭외 1순위로 꼽히며 시트콤 ‘스탠바이’에서 배우,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멘토 등으

로 활약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전성기가 다시 한 번 찾아왔다. 2015년 방영된 MBC ‘복면가왕’을 통해서 당시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로 나선 그는 약 10주간 ‘복면가왕’의 왕좌에 오르며 4대부터 7대까지 연속 4대 가왕 자리를 지켰다. 그는 ‘복면가왕’의 인기를 견인하고 안착을 도운 일등공신이기도 했다. 김연우가 복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하던 순간 시청률은 26.2%까지 치솟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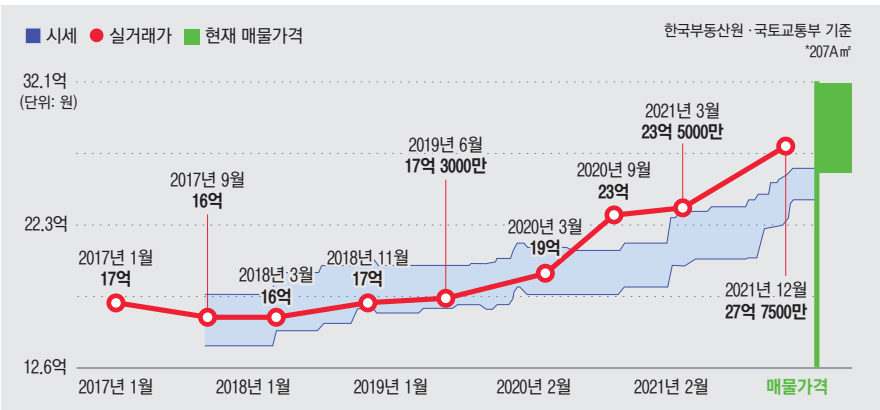
한편 김연우는 지난해 9월 21일과 22일 방송된 MBC 추석 특집 ‘더 마스크드 텔런트’ 출연 이후로 활동이 잠잠하다. 아울러 가수로서는 2019년 유희열의 스케치북 10주년 프로젝트 앨범 이후로 멈춰 있다. 보컬의 신(神) ‘연우신’(김연우의 별명)의 새 앨범은 언제쯤 볼 수 있을지.

이동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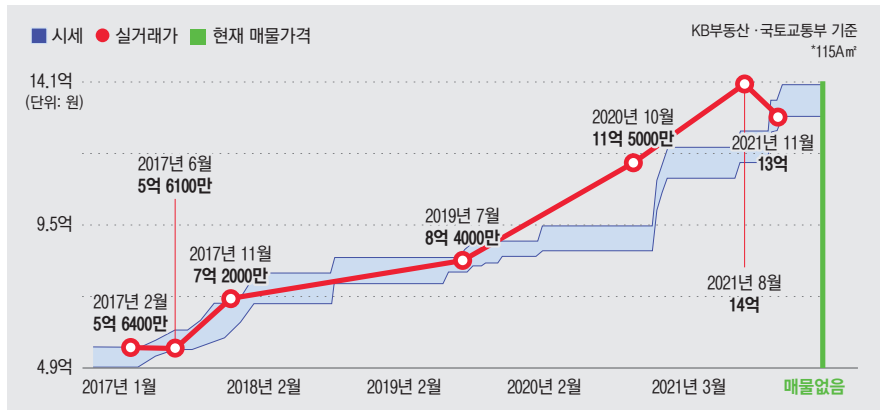
김연우

더샵스타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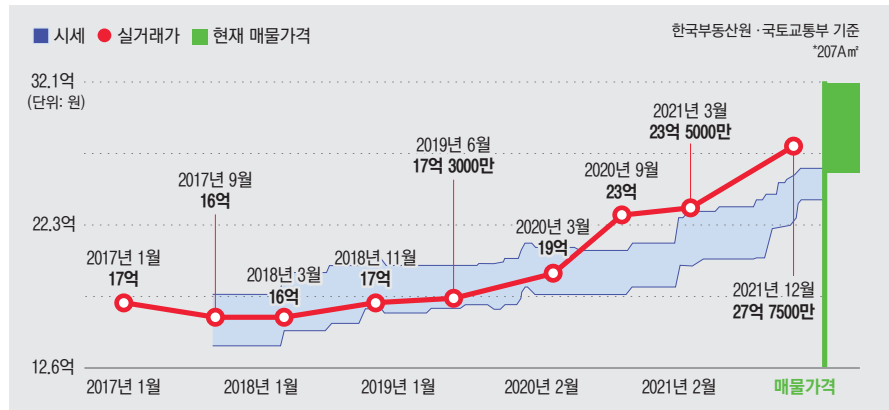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7

자양우성6차



서울 광진구 자양동 515-1

더샵스타시티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7

이인표



이인표 전 한국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성동공업고등학교를 거쳐 건국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농구인 출신으로 1962년부터 1971년까지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했다. 현역에서 물러난 뒤에도 대한농구협회 이사, 삼성전자 농구단 단장, 코리아텐더 농구단 단장, KBL 이사·경기위원장·재정위원장 등 구단과 연맹에서 다양한 경험과 실무를 익혔다. 그는 1983년 농구대잔치와 1997년 프로농구를 출범시

전)한국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 위원장



광진하우스토리강

킨 한국 농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특히 실업팀 삼성농구단 단장 시절 아마추어 농구인들을 2년 넘게 설득해 프로농구를 출범시켰다. 2011년 KBL 총재 경선에 출마했지만 한선교 전 총재에 밀려 아쉽게 낙선했다. 그는 당시 출마 선언문에서 “농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프로농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 꿈을 갖고 있다”며 농구 사랑을 강조했다.

이진원



이진원 전 티몬 대표 이사는 이커머스업계 전문가로 불린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이베이코리아 G마켓과 쿠팡, 위메프를 거쳐 2018년 10월 티몬에 최고운영책임자(부사장)로 합류했다. 그는 위메프에서 근무하며 큐레이션 및 비즈니스의 사업 역량 강화를 주도했다. 이 전 대표이사는 티몬에 입사 8개월 후인 2019년 6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 티몬은 지난해 3월 설립 10년 만에 첫 흑자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이사는

전)티몬 대표이사

는 대표에 오른지 2년 만인 지난해 5월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났다.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적부진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했다. 티몬의 지난해 종합 매출은 1512억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기업공개(IPO)도 차질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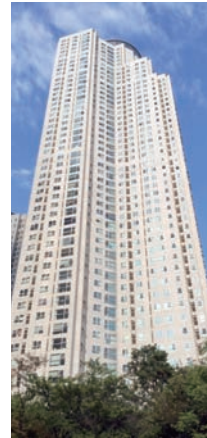
광진하우스토리강

고승덕



고승덕 한국청소년법률협회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법학 석사, 예일대학교 대학원 로스쿨, 정치학 박사,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 컬럼비아대 대학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그는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을 비롯해 외무고시, 행정고시까지 모두 합격해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 고승덕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헌법연구소 연구원, 경찰청 법률자문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

단 법률고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교육법학회 이사, 탐라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이화여대 법과대 겸임교수,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전략기획팀 팀장,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국민민주연맹 부의장, 서울사이버대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SBS 법률 교양프로그램인 ‘솔로몬의 선택’에 출연하면서 대중의 인지도를 쌓았으며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광진하우스토리강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정남진대교 임시 개통… 남파랑길 활성화 전망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은 용산면과 안양면을 잇는 정남진대교가 4일 임시개통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준공된 정남진대교는 길이 430m, 폭 14.5m 규모의 해상교량이다. 이 다리가 임시개통돼 자동차로 30분 걸리던 용산면 남포와 안양면 장재도 사이의 거리가 3분 안팎으로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정남진대교 가설사업은 전남도 지방도 819호선 확장·포장공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장흥군 용산면 상발리에서 안양면 사촌리까지 길이 3.16km의 2차로 개설사업으로 전남도가 시행을 맡았다. 2011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이달 31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군은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는 해안도로가 탄생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관광·스포츠 마케팅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바닷가 도로의 연결성이 높아지



정남진대교.

장흥군

면서 지역 해안 관광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도 맞춰지고 있다.

지방도 819호선 장흥군 구간은 남파랑길 78코스에서 80코스에 해당한다.

남파랑길은 부산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남해안을 따라 연결된 총 90개 코스, 1470km의 걷기 여행길이다.

이번 정남진대교가 개통되면서 ‘남쪽 쪽 빛 바다를 함께 걷는 남파랑길’이 걷기 여

행자의 발 아래로 들어가게 됐다. 남파랑길을 걷는 다도해 여행의 재미가 한층 향상된 것이다.

전남도 및 장흥군 관계자는 “정남진대교 건설로 지역민의 편의가 높아진 것은 물론, 지역 해안 관광 발전의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며 “전남도 블루 이코노미와 발맞춰 연안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금고동으로 이전… 2027년 준공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화건설은 대전시와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대전엔비아이(㈜는 기존의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한다. 여기에 7214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현대화에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통합 이전할 시설은 일일 하수처리 65만t, 차집관로 11.3km 규모로 올해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촌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과 방류수역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하

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자 최초의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다. 수처리분야 및 민간투자사업에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한 한화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해 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화건설은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은 초고도하수처리기술을 비롯한 환경분야 특허 52건, 환경신기술 8건, 녹색기술 5건을 보유하고 있다.

정도현 기자

삼양동 주민센터 복합 신청사 10일 개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는 10일부터 삼양동 주민센터 복합 신청사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삼양동 신청사는 삼양시장 오거리 주변에 위치하며 우이신설삼양역과 4호선 미아역이 가까워 우수한 접근성을 갖췄다.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5층, 2997.68㎡ 규모로 건설됐다. 지하 1층은

주차장 13면과 전기차 충전소가 있으며 지상 1층은 민원실과 행정실, 무인민원발급기, 자원봉사캠프 등을 갖췄다.

2층은 새마을문고(작은 도서관)와 동대문, 유아열람실, 수유실, 3층은 강북드림스타트센터 및 교육복지센터가 있다. 4층은 회의장, 3개 문화 강좌실, 주민자치회 사무실, 5층은 다목적 강당과 방송 장비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아이들은 유아 열람실에서 트램펄린에 올라 신나게 뛰거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수 있다. 작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열람실 바닥에는 안전매트가 깔렸다. 강북드림스타트와 교육복지센터는 새 단장한 곳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경수 구청장은 “한 차원 높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